

보도 일시	2022. 12. 2.(금) 14:00	배포 일시	2022. 12. 2.(금) 8:30
담당 부서 <총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583)
		담당자	사무관 진민 (044-200-4585)
			조사관 조은원 (044-200-4587)

##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 교수),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추신영 교수)와 공동으로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일시 및 장소: '22. 12. 2.(금) 14:00~17:3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온라인 중계(유튜브 '공정위TV') 진행

-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기술유용행위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 제도’와 ‘(제2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각 부문은 한국경쟁법학회장과 한국재산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학계·법조계 및 공정위 담당자 등의 주제별 쟁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하도급법 제도개선 및 집행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정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다.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高 상황이나 기술력이 경쟁력인 4차 산업 시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문제가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약·연동제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최근 하도급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 앞으로도 하도급법 관련 실무쟁점과 심층적 법리 분석을 관련 학회와 함께 고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1부에서는 ‘기술유용행위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제도’를 주제로 홍대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경쟁법학회와 조정원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발표①) 강정희 재판연구원(대법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 판단과 과징금 부과’를 주제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관련 최근 대법원판결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 (발표②) 박미영 연구위원(공정거래조정원 연구센터)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서 3배 손해배상 제도와 금지청구권제도 등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종합 토론) 발표에 이어, 고경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인혜 팀장(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석근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2부에서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및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제로 추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재산법학회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발표①) 김태관 교수(연세대)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하도급법 제4조)
  - (발표②) 김현수 교수(부산대)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하도급 거래의 다양한 거래실태를 고려할 때 일률적 규제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설계됨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 (종합 토론) 발표에 이어, 김건식 센터장(공정거래조정원 연구센터), 박종배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민사법의 토대 위에 경쟁법적 규제가 적용된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에 대해,
- 법 운영기관인 공정위·조정원과 민사법과 경쟁법의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재산법학회·한국경쟁법학회가 최초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하도급법 제도개선 및 집행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붙임> 1. 하도급 분야 공동 학술대회 개요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개회사

담당 부서 <총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583)
		담당자	사무관 진민 (044-200-4585) 조사관 조은원 (044-200-458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건식 (02-6363-9140)
		담당자	연구위원 박미영 (02-6363-9157)



# 하도급 분야 공동 학술대회 개요

## 1. 토론회 개요

- 주제 :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 주최 : 공정거래위원회
- 주관 :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 일시 : '22. 12. 2.(금) 14:00 ~ 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중계 : 유튜브 ‘공정위TV’ 실시간 온라인 중계

## 2. 프로그램

13:50~14:00	등 록	
14:00~14:05	내빈 소개	
14:05~14:10	인사 말씀	한기정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14:10~14:15	개회사	김형배 원장(공정거래조정원)
14:15~14:20	기념 촬영 및 정리	
14:20~15:40	<b>제1부</b> 좌장 : 홍대식 교수(한국경쟁법학회장, 서강대)	
	발표 1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 판단과 과징금 부과 발제 : 강정희 재판연구관(대법원)
	발표 2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고찰 발제 : 박미영 연구위원(조정원)
	지정 토론	고경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인혜 기술유용감시팀장(공정위), 석근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15:40~16:00	휴식	
16:00~17:20	<b>제2부</b> 좌장 : 추신영 교수(한국재산법학회장, 전북대)	
	발표 3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 제도의 개선방안 발제 : 김태관 교수(연세대)
	발표 4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검토 발제 : 김현수 교수(부산대)
	지정 토론	김건식 센터장(조정원), 박종배 기업거래정책과장(공정위),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먼저,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힘써 주신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님,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님,  
추신영 한국재산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도급법은

많은 부분이 민사 영역에 해당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공법으로 발전시킨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민사법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재산법학회 및

경쟁법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高 상황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나,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산업 시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가 지속되는 등  
여러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올해에만  
하도급법 개정안이  
19건이나 발의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은

공정위를 넘어 정부 전체  
혹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동제 입법 과정에서  
사적자치 침해 우려 등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기반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으로  
인력 확충, 신고포상금 확대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일 행사와 같은 전문가 토론회 등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  
소중한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오늘 논의될 주제들은  
모두 최근 경제환경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중요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건설적인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우리나라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알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개회사

---

반갑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님과  
추신영 한국재산법학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시고 토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구조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한 기업이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조달과 생산 일부를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하도급거래입니다.

하도급 거래에 있어 핵심은 상생입니다.

수급사업자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원사업자의 생산성도 높아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n-win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구조는

계속적 거래와 전속적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계속성과 전속성 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 원사업자와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 전속거래로 인하여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도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술을 뺏기고도 당당히 말 할 수 없습니다.

원가와 비용이 로켓처럼 치솟았는데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경우에 따라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파트너인 대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저해합니다.

금년에만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여건이나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하도급법이 제정된 지 38년이나 되었지만 기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여전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법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나 소통의 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도급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고 연구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경쟁법 관련 최고의 학회인 한국경쟁법학회, 민사법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인 한국재산법학회가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있다 할 것입니다.

첫 발표는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입니다.  
금년 9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기술탈취 행위와 과징금부과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강정희 대법원 재판연구관님이  
발표해 주십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고찰입니다.  
저희 조정원에서 수행한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유용행위의 피해구제 제도에 관해  
박미영 박사가 발표해 주십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제도의  
개선방안입니다.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하도급 직불청구권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연세대 김태관 교수님이 발표하십니다.

마지막 발표는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의  
검토입니다.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부산대 김현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들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주제들이기에  
오늘 발표와 토론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조정원은  
관련 학회와 더불어  
하도급법과 관련한 실무쟁점과  
심층적인 법리 분석을 함께 고찰하는  
논의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활발히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